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농업기술원, 감귤농협, 생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프린스 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산 감귤 보급 가속화

농진청, '인터프린스' 브랜드 감귤 생산 위한 연구회 출범

2025년까지 재배 면적 300ha로 확대 위한 묘목 육성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산 감귤 품종인 '인터프린스' 보급을 늘리고 품질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감귤 생산을 위해 조직한 '인터프린스 연구회'가 출범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터프린스'는 농진청이 2016년 육성한 만감류(늦게 수확하는 품종)로 12월 수확하는 '황금향'보다 당도가 높고 향기가 좋으며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품종이다. 올해 7헥타르를 보급했으며 2025년까지 재배 면적을 300헥타르로 늘리기 위해 묘목업체와 협력해 묘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농업기술원,

감귤농협, 생산농가 등 43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터프린스 연구회'는 지난 2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향후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재배할 때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활성화 등 상품화 전략,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프린스' 품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제품 보급 전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품종별 생산자 단체로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23종의 감귤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농가의 외국 품종 선호현상과 품종 경신 시 농가 소득이 없는 점, 새 품종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인터프린스 연구회'를 창립을 시작으로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도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 국산 품종의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국산 감귤 보급을 가속화하고 품종 자급률을 2029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육 감귤연구소장은 "기존 일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감귤 품종의 보급을 위해 '인터프린스 연구회'에 이어 제2, 3의 품종별 생산자 단체 조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생진원, 전문무역상사·식품기업 대상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로 막힌 수출길을 뚫기 위해 기획한 '2020 전문무역상사 초청 전북 식품기업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지난 22일 전주그랜드힐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2020 전문무역상사 초청 전북 식품기업 온라인 화상상담회'는 전라북도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화상상담회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 관로개척 활동이 어려운 전북 식품기업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직접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산업통상자원

부와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수출 역량이 우수한 수출 전문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 바이어와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상담회에는 지역 내 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전북내 기업 27개사와 전문무역상사 11개사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상

담건수 69건, 수출 상담액 31만불의 성과가 있었으며, 4만3천불 가량의 현장 샘플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상담회는 타 온라인 화상 상담회와는 달리 전북 기업의 제품 샘플을 사전에 바이어에게 발송한 후, 바이어들이 전북 기업의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양질의 수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상담회에 참여한 F사 대표는 "상담회 전 샘플을 바이어에게 발송해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다. 향후에도 이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상담회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이 리 신 협

따뜻하고 든든한 힘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리신협이 있습니다.

예금 · 대출 · 공제

본점	·익산시 인북로 138(창인동1가) Tel.(063)-842-0150~4
남중지점	·익산시 인북로 255-20(남중동) Tel.(063)-842-2372
어양지점	·익산시 무왕로20길 14(어양동) Tel.(063)-831-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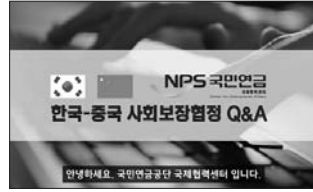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동영상으로 쉽게 확인 가능

공단, '美·中 사회보장협정 관련 동영상' 최초 제작
미국 연금 수급요건·중국 연금 면제 방법 등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3일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중국 사회보장협정 관련 동영상'을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국민연금 중복가입을 면제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두 나라에서 사회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합산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동영상은 해외 파견근무, 지역업 등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2020년 9월말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총36개국이며, 그 중 가장 문의가 많은 미국,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내용을 다루었다.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인 미국편에선 미국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연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미국연금을 한국계좌로 수령하는 꿀팁도 함께 제공한다. 미국편에서는



우리 국민이 중국연금을 면제받는 방법과 중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동영상은 '국민연금 온에어(www.npsnair.or.kr)'와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사회보장협정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협중앙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22일 '신협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창업 도전을 도와드립니다'

신협,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위한 사업설명회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금리대출상품 제공 예정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지난 22일 '신협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청년 소상공인창업지원 사업설명회'는 신규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협의 역할과 공단의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실습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담당자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은 사업설명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상품을 신협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협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관리요령을 교육하고 금융상담과 저금리대출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예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단과 '소상공인·소상공인협동조합 창업·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사업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신협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 9월말 기준 전국 1,774명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저금리 대출제공 등 총 5,113건의 소상공인 별 맞춤형 경영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외부 분야 별 전문가 30여명의 경영지문단을 구성하고 전국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세무, 노무 상담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자문위원의 컨설팅을 받은 대전의 한 업체는 "종합 컨설팅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홍보마케팅과 상품 구성 등을 알게 되었다"며 "새로 알게된 방식을 점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컨설팅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우정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방법 오늘부터 개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오늘부터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등기통상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시행한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 등이다. 먼저 집배원과 수취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1588-1300)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없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한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아울러 수취인의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원한다면 모바일(우편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개선된 내용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오늘부터 시행하며, 1차 지역 시행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오늘부터 시행한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및 익산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1차 시행지역에 해당된다. /김윤상 기자

농촌 보육지원 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보육지원을 위한 2021년 '농촌공공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공공아이돌봄센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0% 증가한 20억 원으로 63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1억5,2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10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감질 근절 선포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3일 전 직원에 참여한 가운데 감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공무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직장 내·외의 감질 행태의 근절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직권간 막달·폭언 금지, 직원들의 상호 존중·배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및 사적 노무제공 요구 금지, 직무수행 원칙에 따라 공정·신속하게 처리 등의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한창술 서부지청장은 "모든 직원이 평등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며, "이번 감질근절 선포식으로 산림청 뿐만 아니라 모두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은행, 재해·재난 대비 '재해복구 비상훈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2일 재해·재난에 대비한 '2020년도 재해복구 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북은행 인화동지점 2층에 위치한 재해복구센터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주전산센터의 장애 발생 시 IT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한 절차 숙지 및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실제상황에 준하는 비상훈련을 가정한 훈련에서는 위기상황대응반의 역할 및 지휘를 점검하고 세부단계별 대응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훈련에서 재해복구센터는 목표 시간인 3시간 안에 재해복구시스템을 정상화해 재해상황 발생에 대비한 복구계획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김윤상 기자